물과 기름이 낳은 딸, 섬김

(마20:20-28)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물과 기름이 낳은 딸, 섬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물과 기름이 낳은 딸, 섬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이건 아들이건 자녀를 낳으려면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서조차도 연합이 있어야 자녀가 나옵니다.
식물도 꽃가루가 수분이 되어야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일을 대가 없이 하게 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 중의 특징인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자녀는 이상하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연합될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과 기름으로 상징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되면 그 섞이지 않는, 연합이 불가능한 관계로부터 비로소 섬김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성 없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물과 기름의 관계는 천국과 이 세상의 돈과의 관계입니다.
좀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해서 돈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들을 표현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 이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돈이 꼭 물먹은 마음의 기름과 같은 것이고 기름 먹은 마음의 물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명예나 관직이나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미모, 학식, 이런 모든 가치들이 천국을 마음이 갖게 되면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천국을 갖게 될 때,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세상의 가치들, 또 세상의 가치에 흠뻑 젖어있으면 천국이 물과 기름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섬김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가 먼저 내 마음에 흡수되어 있는 상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기름처럼 겉돌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반대 역사, 오늘 본문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지언정 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먼저 마음에 젖어들어 오면 이 세상의 가치들이 섞이지 않아요, 흡수되지 않아요, 기름처럼 겉돕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건 세배대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아내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되지요, 그러므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예수님의 이종사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이종사촌들을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당신의 사촌동생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즉, 친인척의 인사청탁이 되겠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섬김이라고 하는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의도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진짜 천국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영의정, 좌의정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의 오해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나라가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민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지배하고 군림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로 착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성취의 경주, 몸값 올리기의 경주에서 앞서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경주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내 아들들이 좌의정 우의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이 땅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가난하다가 부자로 되는 게 아니고, 병들었다가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진짜로 이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가 나의 아버지로서 보좌를 펼치고 머물러 계시는 그 천국을 우리 마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 마음이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가치들을 좋다고 느끼고 세상에서 경주를 하듯이 우리 마음이 몸 대신 성령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디에 와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참여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경주에서 성취의 경주, 몸값 올리기의 경주에서 출발점 위에 천국이 놓여
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취하기 이전의 자리, 성취 제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돈 없고, 벼슬 없고, 학식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얻은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성취한 거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성취한 것이죠, 가난하더라도, 지위가 낮더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따라서 얻는 게 천국이니까, 천국을 가지려면 성취 제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몸값 올리기 제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소원이 생기고 바라는 게 생길 때마다 그 소망을 환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가졌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때 얼른 바꿔버리는 거예요, 환전합니다.
'아, 아니야, 천국이 있으면 좋을 거야!'
'저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아니야, 천국이 있으면 좋겠다, 천국을 느

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동안에 천국이 가져집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느껴지고 소유되어 질 때, 내 마음이 천국에 참여하게 될 때, 천국을 머금게 될 때 이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천국을 가져야 되요.

잘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천국을 머금은 마음은 돈이 물과 기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버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겉돌아요, 돈 써도 기쁨이 안 돼요.

천국을 머금으면서 마음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돈은 많아도 기름이고 적어도 기름이에요.

돈이 많이 벌려도 물과 기름처럼 그게 겉돌아요.

내 마음이 천국으로 기쁜 상태에 기쁨을 더해 주지 못해요.

물과 기름처럼 겉돌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들 잘생기고 예쁘다고 하지만 그 칭찬들이 다 겉돌아요, 마음에서 아무런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아요.

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배운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학, 박사라는 것이 내 자아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내 지식이 자긍심이 되지 못해요.

천국을 머금은 마음에 대해서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겉돌 때,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인 한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서 나를 채워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을 머금은 마음일 때, 믿음을 갖고 천국이 실재한다고 믿고 아버지가 실재한다고 믿고, 실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어 소망했고, 소망하는 동안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천국을 소유한 마음일 때,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미 천국을 머금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만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큼과 섬김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진 자가 큰 자인 것처럼, 천국의 영역에서는 천국을 가진 자가 큰 자예요.
천국을 깊이 가진 자, 천국을 많이 가진 자, 천국을 깊이 느끼는 자, 천국을 많이 느끼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일수록 천국을 많이많이 크게 느낄수록 이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에서 뱅뱅 겉돌아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배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서 미워서 멀리 밀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섞이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써서 느끼는 기쁨을 원하지 않아요.
돈과 마음이 기름과 물처럼 겉돌아요.
이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돈을 쓰게 되요, 나는 마음에서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이것은 왕의 지위와 권한과 재산을 가지고도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깁니다.
또 사도바울은 반면에 거지같은 상태인데도 오랏줄에 포박된 상태인데도, 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 왕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당

신에게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달리고 있는 경주의 도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성취를 원해 달려가고 있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붙잡고 반전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출발점인 성취제로의 위치, 몸값 올리기 제로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갖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성령님이 감각역할을 해주셔서 천국을 보고 느끼고 실감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을 마음에 흡수해버립니다, 흡수한다는 것은 돈 쓰는 기쁨, 돈 버는 기쁨에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머금게 되면 돈이 이상하게도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을 머금게 되자마자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기름처럼 겉도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흡수하지도 않고, 벌어야 되겠다고 흡수하지도 않고, 쓰면 기쁘다고 흡수하지도 않고 겉돌게 되면서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쓰라고.
나에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다 물과 기름처럼 마음에서 하나도 선망이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아직 천국을 갖지 못하고 소망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갖게 되면 물과 기름처럼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도 원하게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흡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바람들, '아, 세상에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다 십자가 붙잡고 환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지금 느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를 지금 만났으면 좋겠다고,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주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대했으면 좋겠다, 주님과는 연합하고 연합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꿀 때 반드시 점차적으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많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느끼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을 느끼고 갖게 되고, 소망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물과 기름처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를 보아도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천국을 머금은 내 마음에 눈곱만큼도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우리 뱃속에 오장육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마음이 천국을 머금게 되면 사람을 만나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요.
내 필요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가치가 물과 기름처럼 전혀 흡수되지 않아요, 흡수하고 싶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경주를 반전하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섬김이 우리 행동의 주 패턴이 될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경주의 방향을 반전하게 하시고, 출발점에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며, 천국 머금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가치들에 대해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섬김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